



60년 전 김일성처럼... 흰색 예복 입은 북한 군부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오른쪽)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호 총참모장, 최용해 군총정치국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날 군 수뇌부들은 이례적으로 흰색 군복을 입고 등장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직후 김일성이 평양시 '전승열병식' 때 착용한 복장이다.(작은 사진)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평양 AFP=연합뉴스, 중앙포토]

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날 군 수뇌부들은 이례적으로 흰색 군복을 입고 등장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직후 김일성이 평양시 '전승열병식' 때 착용한 복장이다.(작은 사진)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평양 AFP=연합뉴스, 중앙포토]

김정은, 김일성식 연설정치

6600자 첫 공개 연설

15일 오전 10시40분 평양 김일성광장. 이를 전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로 국제적 망신을 당한 북한 수뇌부가 김일성 100회 생일 경축 열병식 주석단에 섰다. 열병식 직전 김정은이 단상에 올랐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즐겨 입던 검은 인민복 차림. 낮은 바리톤의 음성으로 20분 가까이 6600자의 축하 연설문을 토박토박 읽어 내렸다. 중간중간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면 이를 응시하기도 했다. 원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몸을 흔들흔들하는 모습도 보였다.

목소리는 김일성과 비슷했다. 숯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김정은 연설은 처음에 들을 때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김일성 목소리를 흉내 내기 위해 고도의 훈련을 한 결과"라며 "1초에 몇 개의 음절을 말하느냐를 따지는 발화율과 1초간 성대 떨림 수 등이 김일성과 90% 이상 일치했다"고 말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목소리를 분석한 배 교수는 "다혈질적인 고음을 지닌 김정일이 대중연설을 피한 반면 김일성은 입을 작게 벌리고 일정한 톤을 유지하며 조곤조곤 말하는 데서 카리스

마를 드러냈다"며 "이를 김정은이 모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김일성 민족의 백년사는 과란 많은 수난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 세웠다"고 역설하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라는 구호로 연설을 마쳤다. 김정은의 이날 연설은 김일성이 1945년 귀국해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행한 연설의 '리메이크'판으로 연출됐다. 92년 인민군 창건식(4월 25일) 때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에게 영광이 있으라"는 단 한마디만 육성으로 내보낸 김정일과는 달리 긴 연설을 했다. 써 준 원고를 의무적으로 읽는 것 같은 어색함도 보였다. 김일성도 집권 초기 3년간은 그랬다고 한다. 김일성은 생전 육성연설을 즐겼다.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

1945년 귀국 연설 리메이크

목소리 흉내내려 훈련한 듯

김정일식 선군정치도 천명

동장에서 행한 연설의 '리메이크'판으로 연출됐다. 92년 인민군 창건식(4월 25일) 때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에게 영광이 있으라"는 단 한마디만 육성으로 내보낸 김정일과는 달리 긴 연설을 했다. 써 준 원고를 의무적으로 읽는 것 같은 어색함도 보였다. 김일성도 집권 초기 3년간은 그랬다고 한다. 김일성은 생전 육성연설을 즐겼다.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



15일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 사상 처음 등장한 기마중대. 기수들은 김일성의 만주 눈발속 '항일 투쟁'을 떠올리게 하려는 듯 흰색 망토를 걸쳤다. [평양 AP=연합뉴스]

년공동사설도 직접 낭독했다.

약 2시간20분간 실황중계된 열병식도 김일성 시대의 '복고풍'이었다. 항일 빨치산 부대 군복 차림의 열병중대가 등장했고, 북한 열병식 사상 처음으로 기마중대가 나왔다. 기수들은 만주벌판의 흰 눈을 연상케 하는 흰색 망토를 걸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에게 직접 협력을 호소하는 '김일성식 연설정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열병중대의 경례를 받기도 했고 최용해 군총정치국장 등 주요 군부 인사들과만 귀엣말을 주고받았

다. 이날 김정은은 군 간부 70명에게 '발'을 선물(준장 진급)했다. 김정은은 예상과 달리 '강성대국' 진입 원년을 선포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 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선군(先軍)'만 강조했다. 김정은은 또 "만난의 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고 강조했다. 강성국가 진입 원년을 선포하는 대신 '분발'을 촉구한 것이다. 이원진 기자 Jealivre@joongang.co.kr

북 전격 공개 ICBM 대포동2호 추정 사거리 6000km... 알래스카도 사정권

북한 사상 최대 열병식

북한은 김일성 100회 생일인 1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날 열병식에서 한 번도 발사실험을 한 적이 없는 신형 미사일을 공개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공조해 실전배치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무기를 실전배치한 뒤 열병식 등을 통해 공개했다는 전례를 고려하면 ICBM을 실전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신형 미사일은 직경 2m, 길이 18m 내외로 제원상으로는 사거리 5000~6000km(미국 알래스카까지 도달 가능)에 달하는 ICBM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는 있었지만 실물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이를 대포동 2호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사거리 6700km인 대포동 2호를 염두에 둔 장거리 로켓(은하 2호) 발사실험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북한군이 실전배치한 최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무수단'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이날 실시한 열병식은 군 창건 60주년이었다. 1992년 4월 25일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군 소식통은 "92년 당시 26종 707대의 차량이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34종 880여 대가 동원됐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MIG-29 전투기를 동원한 축하비행도 이례적으로 실시했다. 또 이전의 열병식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았던 네 종류의 자주포(장사정포)와 방사포를 장착한 장갑차를 공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자축하고 김정은 시대가 시작됐음을 과시하기 위해 최대 규모로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열병식에는 각종 다연장 로켓과 대공화기를 비롯해 육·해·공군, 조선인민내무군(국경경비대), 노동적위군(예비군), 붉은청년근위대(학생군사조직) 등이 참여했다.

한편 북한은 당초 창건 80주년을 맞는 25일 열병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평양주재 무관단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15일 열병식을 거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2012 고려대학교 국제하계대학

올 여름 우리는 고려대학교로 유학합니다!

International Summer Campus
(July 2nd ~ August 9th)

International Summer Campus (ISC) - 대학생 과정

- 지원자격**
국내 및 해외대학 재학생, 휴학생
- 개설과목**
경영/경제/정치/국제관계/법/사회/문화/인문/과학/예술/한국학/한국어 등 총 120여 과목
- 특징**
해외대학 현직 교수진에 의한 전 과목 영어 강의
민속촌 투어, DMZ 견학, 난타 관람 등 문화체험
Buddy Program을 통한 고려대 학생들과의 교류
- 학점인정**
전 세계 81개국 750개 대학교와의 협정을 통해 학점 인정
(신청 전 소속 대학의 Academic Advisor와 상담 필수)
-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협정교 장학금 (U21 혹은 APRU 회원교 학생)
교우 장학금 (부모 혹은 조부모가 교우인 경우)

KU Pre-College - 예비대학생 과정

- 지원자격**
해외대학 입학 예정인 예비대학생 및 학력 우수 고교생
- 개설과목**
Writing and Presentation Skills, 인문/사회/과학 분야 4과목
(ISC 120여 과목 수강 가능)
- 특징**
국내대학 최초 예비 대학생을 위한 여름 특별 강좌
미국 아이비리그대학 교육과정 도입
해외대학 현직 교수진에 의한 전 과목 영어 강의
한국 역사·예술·민족정신 교육, 전통문화 및 유적지 체험
-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교우 장학금

※ 세부 내용 및 신청 : 홈페이지 <http://isc.korea.ac.kr> 참조
신청마감 5/23(수)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국제처
T: 02-3290-1152, 1154, 1156, 1598, 1599
F: 02-922-5820 E-mail: isc@korea.ac.kr

110년 전통의 요리 예술에 대한 열정! 르 꼬르동 블루의 명성을 지금 체험해 보십시오

르 꼬르동 블루 인터내셔널 공식 한국학교 - 르 꼬르동 블루 수강생 모집

2002년 개원 이후 지난 10년간 국내 유일의 공식 한국학교로 정통성을 이어온 르 꼬르동 블루-숙명 아카데미가 6월 18일 개강을 앞두고 간단한 요리시연을 겸한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예약 : 02)719-6961~2 | cordon@sm.ac.kr | www.cordonbleu.co.kr

지원자격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의 남녀 (수업참관 및 입학상담 상시 가능)

입학설명회 4월 25일(수) 오후 5:00 ~ 7:00 * 참가비 없음, 사진 예약자에 한해 참석 가능

모집과정 요리·제과 (주중반, 상시 모집으로 일부 과정은 조기마감 가능)

르 꼬르동 블루 - 숙명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 Le Cordon Bleu - Sookmyung Hospitality Programs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관 7층 www.facebook.com/LeCordonBleuKorea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 호스피탈리티 산업 특화 석사학위과정 MBA 02)710-9073 · 글로벌 외식경영 학사과정 02)710-9114